

## 장시조 장사꾼들의 노래 '댁들에'

### [1]

댁[宅]들에 나모들 사오 저 장스야 네 나모 갑시 언매 웨는다 사자  
 뿌리 남게논 혼 말 치고 검부 남게논 닷 되를 쳐서 습(합)햏야 헤면 마 닷되 밧습  
 닉 사 썩여 보옵소 불 잘 붓습느니  
 혼 적곳 사 썩혀 보면 미양 사 싸히자 흐리라

“댁들 나무 사시오.”

“저 장사야, 당신 나무 값이 얼마인가, 사 보자.”

“싸리나무 한 말 치고, 검불나무 닷 되 쳐서, 합하여 계산하면 아마 닷 되 받습네. 사서 볼 때  
어 보시오. 불 잘 붙을 터이니. 한번만 사 볼 때어 보면 항상 사 때자고 할 것이라.”

### [2]

宅(댁)들에 丹著(단저) 丹(단)술 스소 저 장스야 네 황하[荒貨] 몇 가지나 웨는이  
 사자  
 알애 燈檠(등경) 우 燈檠(등경) 걸 燈檠(등경) 즈을이 수著(저)국이 동희 銅爐口  
 (동노구)가 읍네 大牧官 女妓(대목관 여기) 小各官 酒湯(소각관 주탕)이 本是(본  
 시) 썩어져 물 조로로 흘으는 구머 막키여  
 장스야 막킴은 막혀도 後스말이나 업씨 막혀라

“댁들 젓가락 손가락 사시오.”

“저 장사야, 당신 물건 몇 가지기에 떠드는가. 사 보자.”

“아래 등잔걸이, 위 등잔걸이, 걸어두는 등잔걸이, 조리와 국자, 동이와 노구술이 있소이다. 큰 고  
을 기생과 작은 고을 술안주가 본래 구멍 뚫어져 물 조르르 흐르는 구멍 막힌답디다.”

“장사야, 막힐 데 막히어도 뒷말이나 없이 하여라.”

[3]

딕[宅]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화 그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 
外骨 內肉(외골 내육) 兩目(양목)이 上天(상천) 前行後行(전행후행) 小(소)아리 八  
足(팔족) 大(대)아리 二足(이족) 靑醬(청장) 으스스흐는 동난지이 사오  
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흐렴은.

“댁들에 동난지이 사시오.”

“저 장사야, 당신 물건이 그 무엇인가, 사자.”

“걸은 삐로되 안은 살이로다. 두 눈은 하늘로, 앞으로 뒤로 걸어가는 작은 다리 여덟, 큰 다리  
둘, 간장에 아사삭하는 동난지이 사오.”

“장사야, 그리 거복히 하지 말고 게젯이라 하려무나.”

[4]

宅(댁)들에 동난젯 삼소 외느니 장스야 네 무어시니 그 장식 대답(對答)허되  
大足(대족)은 二足(이족)이오 小足(소족)은 八足(팔족) 兩目(양목)이 上天(상천)  
外骨 內肉(외골 내육) 靑醬(청장) 흑장(黑醬) 압두 絶壁(절벽) 前行(전행)흐고  
後去(후거)도 흐고 썰썰 기는 동난젯 삼보  
장사냐 폐로게 외들 말고 그저 방게젯 삼소.

“댁들에 동난젯 사시오.”

“떠드는 장사야, 당신 물건이 그 무엇인가.”

그 장사 대답하되,

“큰 다리 둘, 작은 다리 여덟, 두 눈은 하늘로, 걸은 삐로되 안은 살이로다. 간장에 양념장에 앞  
뒤로 절벽 같고, 앞으로 뒤로 걸어가고 설설 기어 가기도 하는 동난젯 사오.”

“장사야, 힘들게 떠들지 말고 그저 방게젯 사오 하소.”

[5]

딕[宅]들에 臙脂(연지)라 粉(분)들 사오 저 장사야 네 臙脂粉(연지분) 곱거든 사자  
곱든 비록 안이되 불음면 네 업든 嬌態(교태) 절로 나는 臙脂粉(연지분)이외  
眞實(진실)로 글어 흥량이면 현 속씨슬 풀만정 대엿 말이나 사리라

“댁들에 연지나 분을 사시오.”

“저 장사야, 당신 연지분 곱거든 사 보자.”

“곱지는 비록 얹아도 바르면 옛날 없던 교태 절로 나는 연지분이외다.”

“진실로 그럴 양이면 현 속옷이라도 팔아서 대여섯 말이라도 사리라.”

[6]

딕[宅]들에 잘잇 등미 사오 저 장사야 네 등미 갑 엇되나 사 까라보자  
두 疋 쓴 등미 흥 疋 밧씀네 흥 疋이 못쓴이 半疋 밧소 半疋 아니 밧씀네 하 우은  
말 마소.  
한 적곳 살 까라 보심연 每樣 샷 씻자 흥오리

“댁들에 등메자리(돏자리) 사시오.”

“저 장사야, 당신 자리 값이 얼마인가, 사서 깔아보자.”

“두 필 받을 돏자리를 한 필 받으요.”

“한 필에는 못사오, 반 필만 받소.”

“반 필은 아니 받소. 너무 우스운 말 마소. 한 번만 자리 깔아 보시면 매양 깔자 하오리다.”

[7]

宅(댁)들에 즈릿 등미 사소 저 장사야 네 등미 도흔나 사자  
한 匹(필) 째 등미 半(반) 匹(필) 바드라는가 파네 닉 좃 잣소 아니 파닉.  
眞實(진실)노 그러흥여 풀 거시면 첫말에 아니 풀라시라.

“댁들에 자리등메(돏자리) 사오.”

“저 장사야, 당신 자리 좋은가 사 보자. 한 필 받을 째 돏자리 반 필 값으로 받으려는가, 팔  
게.”

“내 좃 자시오, 아니 파네. 진실로 그렇게 팔 것이라면 처음 말에 아니 팔았겠는가.”